

2025 대학원생 현지조사 지원사업 후기

환경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전공 석사과정
윤수진 (2024-24390)

1. 아시아연구소에서 주관한 대학원생 현지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중국 길림성 연변주 연길시로 7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2주간 현지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사전 조사 당시 설정한 연구 주제는 '연변주 부동산 개발 동향과 재한 조선족 주거지 분화의 전략적 관계'였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부동산 개발 관련 자료 접근과 관계자 인터뷰 섭외가 예상보다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거시적 동향보다는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변화를 중심으로 조사 초점을 불가피하게 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길의 관광화와 상업공간 변화가 주거비나 물가 상승과 같은 이주 압력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건 속에서 조선족의 이동 경험과 정주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초국가적 이동 경험이 있는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국으로의 이동 동기와 체류 경험, 귀환의 이유를 세대별로 비교해 질문했으며, 청년층이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지도 함께 살필 수 있었습니다.

2. 제가 방문한 연변조선족자치주(연변주)는 중국 길림성 동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대륙 내 유일한 조선족 자치주입니다. 2024년 기준 연변의 총 등록 인구는 약 198만 명이며, 이 중 한족이 60%, 조선족이 35.8%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위 행정구역은 연길시, 돈화시, 안도현, 화룡시, 용정시, 도문시, 훈춘시, 왕칭현 등으로 구성됩니다. 현장에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조선족 자치주라는 제도적 표상과는 달리, 관광객을 상대하는 현장에서는 인적 구성과 언어 사용이 제가 예상했던 바보다 훨씬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택시나 외식업 같은 업종에서는 한족 종사자를 더 자주 만날 수 있었는데, 지역 내 조선족 인구 비중 변화를 짧은 조사 기간에도 일상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Figure 1 연길시 조선족 민속촌의 전통 의상 체험 풍경

3. 제한 조선족의 주거지 분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 현지 조선족의 일상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조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중국의 맥락에서 점검하고 구체화하는 장이었습니다. 현지에서는 반구조화 면담과 관찰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했으며, 지역의 생활권과 상업공간이 사회관계 및 이동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자주 방문했고, 그만큼 기억에 남는 인터뷰 장소는 '연길 서시장'이었는데요. 서시장은 1층의 건어물과 외식업을 시작으로 잡화, 기념품, 의류, 인삼 등 다양한 품목이 밀집해 있는 소매 상권으로, 지역 생활경제의 흐름과 현지 관광 산업의 변화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4. 인터뷰 장소는 아니었지만 도시계획학도로서 특히 인상 깊었던 곳은 대학성(网红墙) 일대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이 지역의 한글 간판 풍경이 중국 내 인플루언서(网红, 왕홍)들에게 인증샷 장소로 소비되기 시작했고, '연길'이라고 한글로 적힌 컵홀더나 '똥바' 우유를 들고 찍은 사진을 샤오홍슈에 업로드하는 것이 여행의 표식처럼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인파가 몰려 경찰이 직접 신호를 통제할 정도로 혼잡한 거리였습니다. 중심이 되는 건물 1층에는 한국에서 수입한 식료품을 판매하는 점포들이 즐비해 있었고, 한국의 웬만한 중소 마트나 편의점보다 더 다양하게 구비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적인 이미지가 단순한 향수나 문화 소비를 넘어 상업 공간 구성과 방문 행태를 재편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또한 현지의 유통과 소비 환경이 이미 한국과 촘촘히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던 "답례품은 한국에서 가져가야지!"라

는 인식이 반드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소하면서도 중요한 깨달음이었



Figure 2 현지인들을 따라 왕홍 스냅사진 체험을 했습니다.

5. 앞서 언급한 대학성 일대의 관광 활성화는 공간의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일상 비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알게 된 연변대 재학생 및 청년들과의 대화에서는 관광객 유입과 상권 확장으로 인해 임대료와 주거비, 전반적인 소비 수준(물가)이 상승하는 반면, 지역의 임금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관광화가 지역 경제에 단기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그 비용이 지역 주민 특히 청년층의 생활 안정성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도시의 극적인 부상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익이 되는가"라는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느꼈습니다. 향후 연길의 관광화가 도시공간과 정주 여건, 그리고 초국적 이동의 경로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권 확장과 주거비, 물가 상승 압력이 이 지역 청년층의 생활 안정성과 정주 선택에 어떤 압력으로 작동하는지 주목하는 관점은 상업 켄트리피케이션 논의와도 점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부상이 일회성 이미지 소비로 소진될지, 혹은 지역 내부의 새로운 동력으로 전환되어 지속될지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보입니다.

6. 물밀듯이 밀려오는 인파와 이들을 맞이하는 서비스업으로 가득 찬 연길 서역을 벗어나, 안도현 내 향촌 마을을 방문하며 도시와는 다른 결의 향수와 생활 리듬을 체감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같은 민족적 범주로 묶이더라도 지역과 생활권에 따라 문화적 표현, 일상 경험,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게 구성된다는 점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종종 이들을 단일한 집단으로 치환해 이해하는 방식은 현지의 복잡성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 윤리와 익명성의 문제로 이 후기에서 상술하기 어렵지만, 지역 내부에도 상호 이미지와 거리감, 때로는 미묘한 긴장이 존재하며 이것이 이동과 정주, 관계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얻었습니다.



Figure 3 안도현 향촌 마을의 광경

7. 이번 현지조사는 연구 주제를 현실적인 조사 환경에 맞게 조정하고, 재한 조선족 주거지 분화를 이해하기 위한 비교 관점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내 조선족의 주택 소유 전략이 안정적 정주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하는 학위논문 주제와 관련하여, 이들의 선택이 어떤 사회관계와 생활세계의 조건 위에서 형성되는지 재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의 현지조사는 연구의 출발점과 문제의식을 제게 거듭 상기시켜, 귀국 이후에도 지난한 과정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정리해 연구 질문을 정교화하고, 학술 논문으로 완성하고자 합니다. 무모한 계획을 응원해주신 박인권 교수님, 현지조사 준비부터 수행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최 선생님, 무엇보다 본 지원사업으로 학문의 지평을 넓혀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합니다.